

파리 요새 재건축 사업과 프랑스의 건축자산 복원 계획

유무종
프랑스 파리고등건축학교
국가건축사과정

오래된 건물의 역사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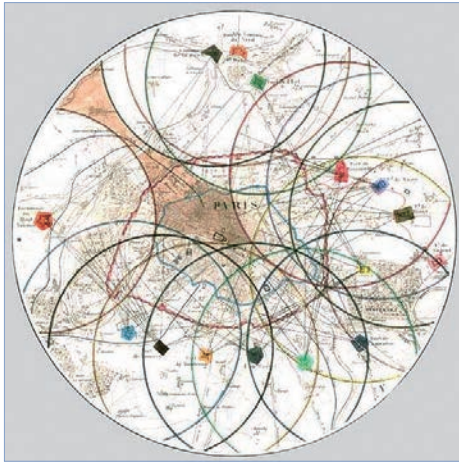
2019년 4월 15일 파리 노트르담성당이 불에 타는 사고가 있었다.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오던 건물의 화재는 나라와 세대를 뛰어넘어 충격을 안겨 주었다. 파리 시민에게 노트르담성당은 오래전부터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해 온 장소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사람들과 함께 역사적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건물이다. 그러면서 음악·조각미술 등 당시 시대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었으며, 그 형태적 상징성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축성기술 또한 발전되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며 사람들의 삶에 꾸준히 영향을 끼친 건물은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19세기 프로이센 침략 이후 프랑스는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의 요새화 계획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 이상의 전쟁이 없어지고 방치된 요새는 역사적 차원에서는 문화유산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버려진 공간으로 도시의 또 다른 문젯거리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시(市)마다 버려진 요새를 현재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였고, 현재 80% 이상의 요새는 각 도시의 특성과 다양한 삶의 형태를 담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파리의 요새 재건축 사업을 토대로 건축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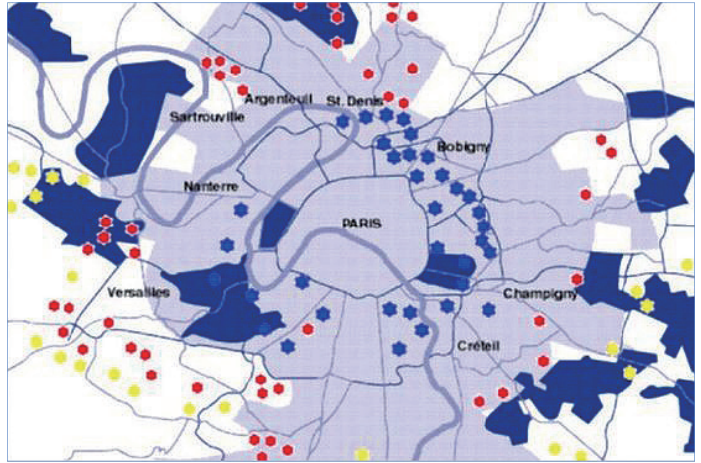
파리의 요새화

프랑스 수도의 요새화는 1670년 루이 14세에 의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벽을 두르는 정도였지만 17세기 말 프랑스의 군인 보방(Vauban)은 포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요새를 발명하였다. 요새의 모서리 부분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보루를 만들어 대포를 설치하기에 좋은 형태를 갖추



1830년대 만들어진 첫 번째 방어선과 포탑의 사정거리

출처: Histoire des lieux méconnu ou disparus d'Ile de France. <https://www.marquis78.fr>



파리를 둘러싼 모든 요새들(파란색 1830년, 붉은색 1874년, 노란색 1914년)

출처: Histoire des lieux méconnu ou disparus d'Ile de France. <https://www.marquis78.fr>

었다. 그는 이 요새를 지을 때 비트루비우스의 요새 건축론을 참고하였다.*

1830년부터 프랑스는 파리를 대대적으로 요새화하기 시작한다. 파리 도시 외곽에 긴 성벽을 둘러싼 후 포격을 위한 16개의 요새를 파리 외곽에 배치하였다. 각각의 요새는 서로 지원사격이 가능하게 만들어 전쟁 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파리와 너무 인접하게 지은 요새는 적들에게 쉽게 접근을 허용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결국 1870년 요새에 설치된 포(砲)보다 긴 사정거리의 무기로 인해 파리가 점령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1874년부터 1882년 사이에 파리로부터 20km 떨어진 곳에 또다시 17개의 요새를 만들어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버려진 요새와 재활용 방안 방치된 요새

전시에 사용하는 요새는 대피를 위해 잠시 상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 상주할 수 있을 만큼의 도시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요새를 중심으로 근처에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요새의 기능은 전쟁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무기와 전투기술이 발전할수록 요새도 그에 맞추어 축성기술이 발전하였고 마을도 규모가 조금씩 커졌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전쟁의 형태가 예전과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요새는 도시 안에서 점점 고립되어 오늘날에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에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요새 안을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 무단으로 점거하여 건물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 몇몇 요새는 당시 사용되었던 포탄이나 총알이 그대로 남아 있어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었고, 심한 곳은 우라늄이 발견되어 접근 자체가 금지된 곳도 있다.

*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그랬듯이 요새를 마치 작은 마을처럼 조직하였다. 중앙에 공동시설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요새 안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리 근교 누아지 르 그랑(Noisy-le Grand)의 도시 규모 변화



자료: Géoportail의 위성 사진을 이용하여 조사분석 후 필자 작성

재활용 방안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요새를 재사용하기 위한 움직임은 시들마다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1830년에 지어진 요새들은 두 곳을 제외하고 군과 관련된 시설로 재활용되었고, 1870년에 지어진 요새들은 각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모든 요새는 관리의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협회가 관리하는 것으로 민간인의 접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협회나 단체를 통해 예약한다면 언제든지 요새를 방문할 수 있다. 또 요새 주변 포대(砲臺)가 있던 곳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자치단체나 협회를 통해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형태라 예산이 넉넉하거나 관리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는 않다. 아직 재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요새는 더 이상의 파손이 없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는 중이다.

1830년, 1870년 파리 근교 방어요새 재활용 현황

LISTE DES FORTS DE LA PREMIERE CENITRE TYPE 1830	
Nom	Réhabilitéé Aujourd'hui
Fort du Mont-Valérien	Usage militaire
Fort de d'Juy	Ecoquartier
Fort de Vanves	Usage militaire
Fort de Montrouge	
Fort de Bicêtre	
Fort d'Juy	
Fort de Charenton	
Fort de Vincennes	
Fort de Nogent-sur-Marne	
Fort de Rosny-sous-Bois	
Fort de Nanay-le-Sec	
Fort de Romainville	
Fort de d'Aubervilliers	Ecoquartier
Fort de la Briche	Usage militaire
Fort de la Double-Couronne	
Fort de l'Est	

첫 번째 방어선의 두 요새는 친환경 주거지로 재건축이 이루어졌다. 나머지는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LISTE DES FORTS DE LA DEUXIEME CENITRE TYPE 1874	
Nom	Réhabilitéé Aujourd'hui
Fort de Cormeilles	Cinéma et musée
Fort de Montmorency	Centre d'initiation aux techniques commandos
Fort de Domont	Entraînement préventif de incendie
Fort d'Ecouen	Ferme
Fort de Satory	Parc de loisir
Fort de Vaujours	Ferme (à cause de l'uranium)
Fort de Chelles	Stockage de film
Fort de Villiers	Ferme (en 2015 la nouvelle municipale décide de sa réhabilitation et de sa restauration)
Fort de Sures	Réhabilitéé pour visite
Fort de Villeneuve	Pompiers
Fort de Châtillon	Recherche nucléaire
Fort de Palaiseau	Office national d'études et de recherche aérospatial
Fort de Villeroy	Militaire
Fort de Haut-Ruc	Abandonné
Fort de Saint-Cyr	Archives photographiques
Fort du Trou d'Ender	Chif, chasses présidentielles

두 번째 방어선의 요새들은 여가를 위한 공원, 영화관, 박물관 등 시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충족시키며 재활용되었다.

최근 사례

파리로부터 10km 떨어진 누아지 르 그랑(Noisy-le Grand)에 있는 빌리에르 요새(Fort de Villiers)는 1870년 수도 파리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방어선 중 하나로 지어졌다. 방치된 요새들 가운데 빌리에르 요새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었다. 2001년 7월 27일 프랑스 국방부는 누아지 르 그랑시에 이 요새를 팔았다. 1999년부터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요새를 덮은 흙 위로 나무가 자라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성하게 자랐기 때문이다.

점점 방치되어 가는 요새의 보존·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빌리에르 요새 보존협회(L'Association de Sauvegarde du Fort de Villiers)가 창립되었다. 이들은 우선 요새를 사진기록보관소로 사용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요새를 알리고 보존 및 개발향상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과거로부터 이 요새가 가진 역사적·군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관한 연구를 하며, 마침내 2008년 빌리에르 요새는 빌리에르 요

새 보존협회와 건축상원연구원(le groupe d'étude architectural du Sénat)에 의해 이 요새의 특별함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군사문화유산이 되었다.

나아가 협회는 누아지 르 그랑의 시장 보좌관을 여러 차례 만나 본격적인 재보수를 상의하였지만 그들은 요새가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협회는 빌리에르 요새를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에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지속적으로 화재나 낙서로 인해 파손되었다. 요새 위로 자라난 나무의 뿌리로 구조적 문제가 생겨 붕괴의 위험까지 발생하자 문화재로 지정받은 그해 관리의 목적을 이유로 요새를 격리시켰다.

그러다 2015년 더 이상의 파손을 막기 위해 시에서 정식으로 요새를 복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러워진 요새를 6개월간 재정비하는가 하면 재활용을

* 협회에서 운영하는 형식의 창고, 노숙자 쉼터, 사격클럽으로 사용되었지만 2005년 구조적 결함과 약화로 요새를 폐쇄하였다.



이시 레 물리뉴(Issy-les-Moulineau)의 이시 요새(Fort de d'Issy) 개발 전

출처: Histoire des lieux méconnus ou disparus d'Ile de France(<https://www.marquis78.fr/forts.html>)의 사진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이시 레 물리뉴의 이시 요새 개발 후

출처: Ecohabitat(<https://ecohabitat-9.trouver-un-logement-neuf.com/infos/synergie-reussie-ecoquartier-issy-les-moulineaux-7122.html>)의 사진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누아지 르 그랑의
빌리에르 요새(2018)

용을 위한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다녔다. 2018년에는 프랑스 건축가 빌모트(Willmotte)에 의해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되어 많은 젊은 학생들과 전문 건축가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제시하는 건축자산 복원

노트르담성당의 화재 사건 다음 날 에두아르 필리프(Edouard Philippe) 총리는 대성당의 첨탑을 복원하는 공모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는 “새로이 만들어질 노트르담성당의 첨탑은 우리 시대의 기술에 초점을 둘 것이다”^{*} 라고 발표함으로써 재건의 목표가 단순한 복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문화유산에 신기술을 접목해 다시 한번 노트르담성당을 시대를 뛰어넘는 건축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방치된 건물은 도시의 문제로 커질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을 탄다는 것

은 다른 시간대 사람들의 요구를 건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건물의 용도와 관련이 있는데,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할 때 건물은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기능을 잃은 건물은 버려지거나 방치된다. 문화유산에 속하는 건축물을 새롭게 복원하는 과정은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열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단순히 옛날의 건물을 보여주는 범주를 넘어 지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프랑스는 많은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나라로 오래전부터 문화유산에 관한 관리를 체계화하여 소수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복원과 관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원문은 “doter Notre-Dame d’une nouvelle flèche adaptée aux techniques et enjeux de notre époque”(https://www.lefigaro.fr/flash-actu/notre-dame-un-concours-international-d-architecture-pour-reconstruire-la-fleche-20190417)



빌리에르 요새의 복원이 결정된 이후 관리방안에 관한 기사
출처: Le Parisien. www.leparisien.fr



빌리에르 요새 두고 열린 아이디어 공모전
출처: 빌모트건축. <http://www.wilmotte.com/fr>

참고문헌

- 1 Françoise Choay. (1996). L'Allégorie du patrimoine. Paris. Seuil. 272.
- 2 Histoire des lieux méconnus ou disparus d'Ile de France. (2012). <https://www.marquis78.fr/forts.html>
- 3 Dossier complet. Commune de Noisy-le-Grand 93051.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011101?geo=COM-93051#chiffrecl-13>
- 4 Mohsen Mostafavi et David Leatherbarrow. (1993). On Weathering. Cambridge. The MIT Press. 139.
- 5 ASFV. (2015). Patrimoine oublié de Noisy-le Grand: Le Fort de Villiers est en grand danger. Patrimoine et Environnement. <http://www.patrimoine-environnement.fr/patrimoine-oublie-de-noisy-le-grand-le-fort-de-villiers-est-en-grand-danger/>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속에 방치된 건축자산을 재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 계획은 건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현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충족시키는 기술력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